

에너지협동조합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

20250605 독립팩트체커 선정수

선정수 팩트체커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03~ 국민일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등
- 2020~2023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 2023~ 독립팩트체커로 활동 중
-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
- 저서: 인포데믹 또는 정보감염병, 가짜과학 세상을 여행하는...
- KBS 오늘아침1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팩트체크 코너 고정출연

가짜과학 세상을 여행하는 팩트체커를 위한 안내서

- 빛은책들 2023.04.14
- 과학 사칭 사례들
- 언론의 잘못된 보도들
- 과학 사칭을 걸러내는 방법
- 팩트체크 사례와 실습



위기 대응 팩트체크

1. 태양광발전 허위조작 정보의 실태
2. 팩트체크 이론과 실제
3. 성명문과 입장문 쓰기



태양광 허위조작 정보 실태

선택분 촛봉엘 딸름 텔애괘 점망

- 사업환경 개선
- 반대세력 준동 심화 = 문재인 정부 사례
- 새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
- 태양관 관련 규제 변동 여부
- 송전망 문제

태양광 관련 허위조작정보

-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 ②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 ③ 태양광 전자파·빛반사로 주변에 해를 끼친다?
- ④ 태양광이 원전보다 6배 비싸다?
- 출처 : 뉴스톱(<https://www.newstof.com>)



팩트체크

경제/산업

금융/증권

건설/부동산

정책/사회

The Vista

오피니언

[홈](#) > [정책/사회](#)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선정수 기자 입력 2021.10.13 17:49 수정 2021.11.01 09:38



기후위기 해결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를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한 제품에 일종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2035년 이후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

대선 토론회에서 드러난 재생e 인식

- “원자력발전소가 풍력에 비해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 6분의 1도 안 된다.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그동안 왜 안 했느냐.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재명 후보는) 환경론자 말에 휘둘려 국가 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https://www.youtube.com/live/SE_glltSHbU?si=b-tJZGb8s73X-KeM&t=6162
- https://www.youtube.com/live/SE_glltSHbU?si=BsthhJvoZuIT25XG&t=6365

비싸다고 한다면?

Magazine

천막사진관

Subscribe

Lab. 리터러시

더스쿠프

가치를 같이 읽다

2025-05-23 (금) 제649호

ALL

Cover

What to Read

Special

홈 > SPECIAL REPORT > 댓글에 답하다

발 없는 원전이 애먼 태양광까지 왜곡했나 [댓글+]

✎ 김정덕 기자 | ⌚ 입력 2023.11.14 | 📄 호수 571 | 💬 댓글 4

더스쿠프 댓글에 답하다
재생에너지발전 비용의 비밀②
원자력과 태양광, 경제성 비교
균등화 발전비용 큰 차이 없어
태양광 LCOE 더 낮아질 전망
원전 비용 할인 요소 고려해야

재생에너지발전보다 원전으로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들이 빼놓지 않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용이 원전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더스쿠프가 기사를 통해 ‘원전에 기

결국엔 선택과 집중?

- DJ 정부 IT중심 경제정책
- 미국, 대공황 극복 뉴딜정책
- 원전과 태양광,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인가?
- 규모의 경제에 따라 단가는 낮아진다.

누가 왜 만드나?

- 원전 complex = 산업+정치+학계/연구계
- 1차 이해관계자
- 2차 이해관계자

팩트체크 이론과 실제

팩트체크 어떻게 할까?

- ① 원문 확인
- ② 맥락 파악
- ③ 사실과 주장 분리하기
- ④ 근거 찾기
- ⑤ 재구성
- ⑥ 팩트체크 결과를 쉽게 전달
- ⑦ 피드백/수정

팩트체크 따라잡기

-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0932>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점유율

단위: %(2021년 1월 1~14일)



※태양광 설비는 미계량 태양광(한전PPA, BTM) 발전 물량이

팩트체크 따라잡기

- '피크타임 태양광 무용지물'이라는 중앙일보 왜곡보도

[출처: 뉴스톱]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

'피크타임 태양광 무용지물'이라는 중앙일보 왜곡보도

선정수 기자 입력 2021.02.18 17:42 수정 2023.03.07 10:58



중앙일보는 지난 12일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 기사를 발행했다. 핵심 주장은 전력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 대에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내용이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중앙일보

경제

| 경제정책

산업

금융증권

부동산

과학미래

글로벌경제

고용노동

글로벌머니



가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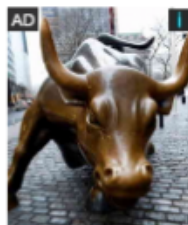


[중앙일보] 입력 2021.02.12 16:50 수정 2021.02.12 17:21



손해율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늘었지만, 눈·비 같은 기상 악화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계좌에 90만 원 있다면 '이...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점유율

단위: %(2021년 1월 1~14일)

44.8

팩트체크 따라잡기

① 원문 확인

중앙일보는 무엇을 주장했나?

중앙일보는 무엇을 인용했나?

※태양광 설비는 미계량 태양광(한전PPA, BTM) 발전 물량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① 중앙일보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점유율 1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2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피크 시간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4일 전력수요가 가장 큰 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0.4%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부터 내린 폭설로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이 쌓이고, 기온 하강으로 태양광의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력 생산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여름에도 궂은 날씨 때문에 태양광의 역할은 미미했다. 지난해 7월 피크 시간대 태양광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은 0.8%, 8월에는 1.8%에 불과했다. 중부 지방에서 지난해 6월24일부터 54일간 역대 가장 기간 장마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태양광 발전은 보통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듈이 과열돼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점도 작용했다.

팩트체크 따라잡기

② 맥락 파악

중앙일보는 왜 이런 기사를 내는가?

소스 제공자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가?

소스 제공자를 통해 나갔던 기존 언론 보도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 경제 > 경제일반



[비즈 칼럼] 원자력 기술개발 체계 개편, 오늘 아닌 미래를 ...

3일 전 — 소형모듈원자로(SMR), 제4세대 원자로 등 첨단 원자로는 물론 원자력 이용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도 주목받는 이슈다. 특히 지난 5월 23일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 오피니언



[사설] 원전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2024. 9. 12. — '고준위방폐법' 처리, 인프라 복구로 경쟁력 강화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어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 국제 > 국제일반



메타도 원전 기업과 손 잡아...AI 수요 폭증에 원전 귀환

56분 전 — 메타, 구글, 아마존은 지난 3월 세계 원자력 협회가 주도한 성명에 참여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를 3배로 늘리기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 오피니언



[사설] 원전 30년, 다시 원자력 발전이다

2008. 4. 27. —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화석(연료) 발전에 집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

- 19~22대 국회의원(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 양산시, 양산시갑,
- 2020.7~2022.5 국회 산자위 위원
- 태양광 비판, 원전 옹호 시기



文

... 485 ...

20/20/10/20 07:32



[... 저 ...]

2021/08/25 14:53



[...]

2020/08/03 18:04



... 재 강 ... 1 ... 1017MW ...

2021/06/04 14:15



[... 12 ... 公 ... 16 ...]

2020/08/12 09:34



... 0.85% ...

2020/08/30 16:49



[...]

2021/05/09 14:12

20 ... 2019

(99,28 ...

팩트체크 따라잡기

③ 사실과 주장 분리하기

사실=>?

주장=>?

이면➡?

팩트체크 따라잡기

③ 사실과 주장 분리하기

사실=> 전력거래소에서 의원실로 자료를 줬다.

주장=> 태양광 발전량이 미미하다.

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팩트체크 따라잡기

④ 근거 찾기

언론보도 ← 소스 ← 원출처

자료에서 도출한 결론은 보편타당한가?
나는 편향에서 자유로운가?

팩트체크 따라잡기

⑤재구성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보편 타당한 해석

태양광의 실질적 기여도는 얼마인가?

[산업부 입장]

□ 同기사의 ‘전력수요 피크시간대 태양광·풍력의 발전비중 1.7%’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시한 수치로서 사실과 다름

① 기사에서 제시된 발전비중(1.7%)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태양광의 발전량만으로서, 전체 태양광을 모두 포함하면 발전비중이 9.2%로 추계됨

* 7.1~7.15일 피크시간대 발전량 : (전체) 1,226.5GWh, (태양광) 112.7GWh (9.2%)

② 태양광은 소규모 전원의 특성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한 태양광은 전체의 일부(25%)에 불과하며, 대부분(75%)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 사업 또는 자체 생산하여 직접소비하는 자가용임

* 태양광 설비용량(‘20.末기준) : 전체 18.4GW(추계), 전력거래소 등록 4.6GW (25%)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구매자가 전력을 직접거래하는 당사자간 계약 방식

팩트체크 따라잡기

⑥팩트체크 결과를 쉽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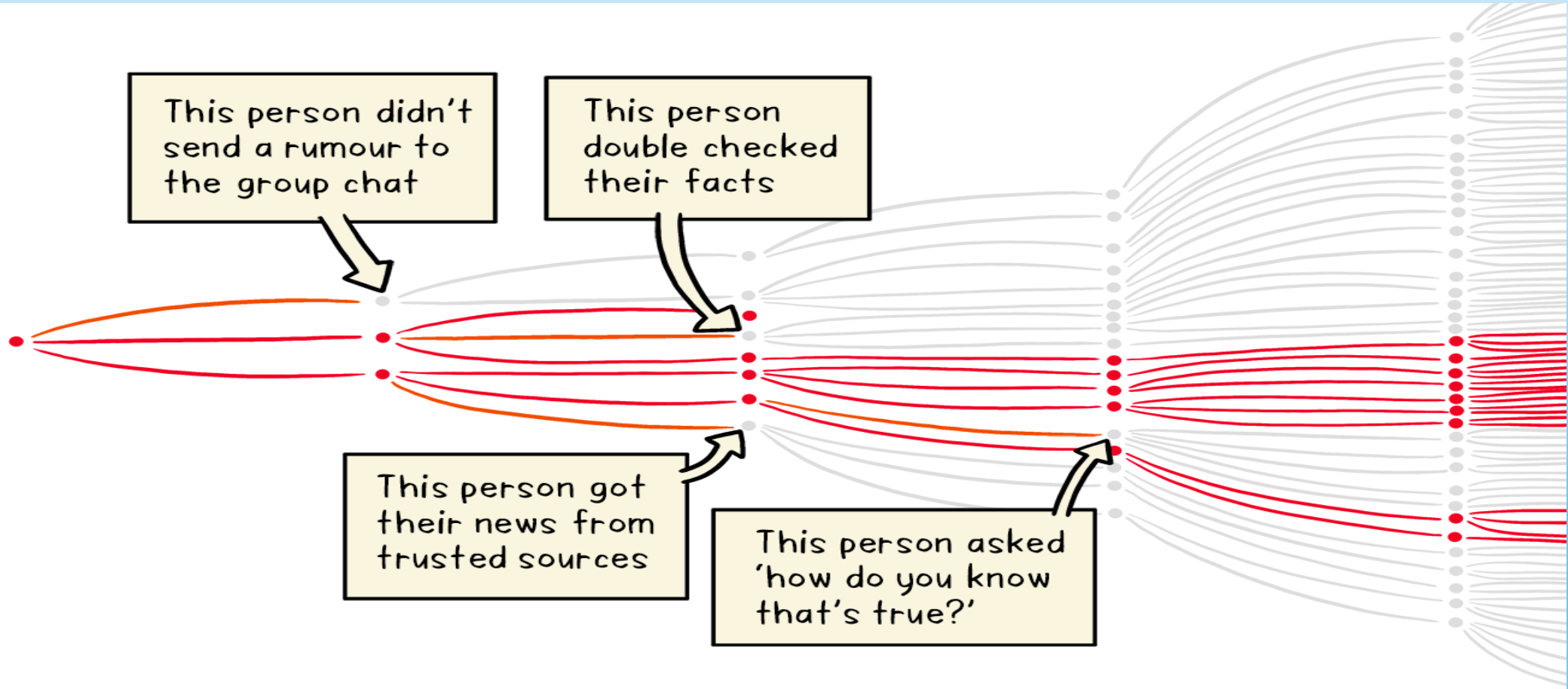
논리적이고 간결한 글쓰기
시각화 작업/카드뉴스, 인터랙티브

팩트체크 따라잡기

⑦ 피드백/수정

독자(이해관계자) 반응
투명한 공개/수정 원칙

팩트체크 왜 중요한가?



A photograph of solar panels installed on a roof, viewed from a low angle looking up. The panels are dark blue with white grid lines. The background is a bright blue sky with scattered white clouds.

위기 대응 소통

위기 대응 소통(Risk Communication)

- 나와 조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 신속·정확하게 대중과 소통해
-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스킬

월길 손탄임 8월칠

- 대중과 협력하세요.
- 노력을 계획하고 평가하세요.
- 고객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정직하고, 솔직하고, 개방적이 되세요.
-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협력하고 조정합니다.
- 미디어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 명확하고 연민 어린 마음으로 말하세요.

-미국 안전 전문가 협회

<https://www.assp.org/news-and-articles/seven-elements-of-effective-risk-and-crisis-communication>

위기 대응 실패 사례

- ①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
- ②SPC삼립 노동자 산재 사망
- ③대한항공 땅콩회항
- ④文, 영화 한편 보고 탈원전
- ⑤남양유업 불가리스

위기 대응 모범 사례

- ①제주항공 2216편 참사_ 이후 안전 관련 대응
- ②코로나19 사태_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③세월호 참사, 이주영 해수부 장관
- ④태기산 풍력발전

위기는 이렇게 찾아왔다①

• 2021. 11. 서울시 감사위원회 태양광 사업 조사결과 발표

- ① 협동조합 주요임원 자문형식으로 시 정책에 적극 관여, 내부 정보로 이익 추구
- ② 공공부지 제공,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지원 확대 등 시에 무리한 요구 · 관철해 수혜
- ③ 물리적 목표 달성 위해 SH임대아파트 활용해 설치...SH는 보급업체 영업활동 지원
- ④ 발전효율, 설치기준 고려없이 물리적 확대 치중...효율 낮고 전기요금 절감도 저조
- ⑤ 보급업체 정기점검 · 무상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도 부실...6년 간 설치분 37% 업체폐업

2021. 11. 15.(월) 조건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11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김형래

02-2133-3080

조사1팀장

유정태

02-2133-3082

담당자

조재영

02-2133-305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3쪽

서울시 감사위원회, 태양광 사업 조사결과 발표...30건 지적사항 통보

- 협동조합 주요임원 자문형식으로 시 정책에 적극 관여, 내부 정보로 이익 추구
- 공공부지 제공,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지원 확대 등 시에 무리한 요구관철해 수혜
- 물리적 목표 달성 위해 SH임대아파트 활용해 설치...SH는 보급업체 영업활동 지원
- 발전효율, 설치기준 고려없이 물리적 확대 치중...효율 낮고 전기요금 절감도 저조
- 보급업체 정기점검무상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도 부실...6년 간 설치분 37% 업체폐업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1. 처분요구 사항

연번	관련기관 /부서	처분 유형	처분요구 제목	지적내용 및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통보	○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사적 이익 추구 방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에너지정책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방안 마련토록 통보	추진중
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통보			"
3	서울시 시민협력국 갈등협치관리과	통보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위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위원회 전수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4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통보	○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행정지원 제공	- 태양광 설치부지 사용료 인하, 설치부지 선정관련 편의제공 → 개선 필요	"
5		통보		-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무담보·무이자 융자 지원 → 개선 필요	"
6		통보		- 발전자액 지원 → 개선 필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22년부터 중단예정
7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부서 주의	○ 시민편익보다는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활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축 임대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입주인 미동의 → 향후 재발방지 및 입주인 불편사항 예방 방안 검토 필요	"
	서울주택 도시공사	부서 주의			"
8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부서 주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시설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목표 달성 을 위해 예산 편법 집행) → 향후 재발방지방 안 필요	"
	서울주택 도시공사	부서 주의			"
9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부서 주의		- 서울주택도시 공사에서 업체별 설치 지역·단지별 배분, 물량 배정 행위 부적정 → 향후 재발방지 필요	"
	서울주택 도시공사	부서 주의			"

위기는 이렇게 찾아왔다②

1	빛반사	- 빛반사로 인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 - 인근 거주 주민이 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조망의 침해 등
2	전자파	-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주변 경관과 조화	-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4	중금속 오염 및 화학세제 사용	- 납 등 중금속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 - 세척시 화학세제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자연재해 피해	- 집중호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우려
6	환경오염	-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
7	이격거리 조례	- 서울시 조례는 아니지만 여러 지역의 이격거리 조례들의 취지를 참작하 여 이 사건 부지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입지로 적절하지 않음

위기는 이렇게 찾아왔다②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행정소송 결과 공유 및 소송비용 모금 요청

평범한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고 참여하던 과정에서, 강남구청의 반대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된 상황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 소속 협동조합들은 2018년 5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에 약 1MW 규모의 부지를 배정받았다. 2018년 9월 조합들은 서울특별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각 부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서울연합회 소속 8개 조합은 2018년 가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중 4개 조합(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2019년 6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7월에는 강남구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서류를 접수했다(또 다른 4개 조합도 연이어 발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강남구청의 반대로 추진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강남구청은 주민 민원 등 몇 가지 이유로 신고 수리를 미뤄왔으며, 결국 이를 반려 처리했다. 이에 2020년 4월 위 4개 조합은 강남구청이 부당하게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햇빛발전협동조합 발전사업 공모
	6월	공모 결과 발표: 총 10개 부지, 8개 협동조합 선정
	9월	서울특별시와 8개 협동조합 실시협약 체결

섹모섷왈 잉책뭇

- 성명서: 정치적·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공세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임. 주로 정부나 기업에 특정 사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거나, 우리 단체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글.

성명서와 입장문

- 입장문: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밝힌 글

<네이버 사전, 우리말샘>

-우리 단체에 대한 부정적 사안에 대한 해명이나 상황 설명 등을 담은 글. 주로 수세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사용됨.

- position statement

성명서와 입장문

- 성명서 예시

<https://kfem.or.kr/energy/?idx=163112053&bmode=view>

<https://www.energytransitionkorea.org/energypress/?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3780125&t=board>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1016>

민주당은 윤석열식 SMR 육성 정책 폐기하라!

- 기후위기 시대, 대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SMR(소형모듈원전) 전략 육성'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 온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핵심 기조와 상충하는 이러한 친원전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육성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퇴행이다.

특히 SMR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의 기술이며 상용화 가능성이 난망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당장 미국의 대표적인 SMR 개발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조차 기술적·재정적 한계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은 1997년 이후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수차례 실패를 거듭해 온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안전성, 경제성, 기술적 한계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산업 육성과 수출 가능성만을 부각하며 원자력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대형 원전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 그리고 사고 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했다. '소형'이라는 이름이 본질적인 위험을 덜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대형 원전과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SMR을 분산 운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 가능성과 관리 부담 전국으로 확대될 뿐이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SMR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낡은 에너지계획 수립 방식 폐기하고,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새로운 에너지계획 수립해야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

2025년 2월 23일 (일)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

21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이번 전기본에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총 5.6GW)에 더해 대형원전 2기(2.8GW)를 신규로 건설하는 계획과 함께 아직까지 기술개발도 안 되었고, 표준설계 인가도 받지 못한 SMR(소형모듈원전) 700MW(170MW*4기)를 보급하는 계획까지 담고 있다. 10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이번 11차 전기본의 핵심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 알박기다. 심지어 위 계획은 신규원전의 추가 건설 뿐 아니라 노후원전도 모두 수명 연장하는 계획이다. 지금도 원자력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10차전기본에 따라 중국과 인도에 이어 가장 많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신규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공동 성명서] 정부의 대왕고래 가스 전 탐사시추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대왕고래 탐사시추 강행을 규탄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적 계엄령 발표 이후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오는 12월 17일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를 강행하려 한다.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잘못된 결정이다.

한국은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순위(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올해도 최하위인 63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왕고래 유가스전 개발 추진이 낮은 순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으로 인류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성명서 구성

- 문제적인 현 상황
 - 이게 왜 문제인가?
 - 우리의 요구
-
- A가 B를 하고 있다.
 - B는 나쁜 짓이다.
 - B를 당장 멈추고 C해라.

입장문 예시

- 뉴스타파

<https://kcij.org/notice/u/TnFZk>

경실련

<https://ccej.or.kr/posts/zvt1yo>

환경운동연합

<https://kfem.or.kr/energy/?bmode=view&idx=94630016>

검찰이 오늘 아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뉴스타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배임 수재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6일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만배 - 신학림 두 사람 사이의 출판물 매매 거래와 무관한 것은 물론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3월 6일 보도를 ‘대선개입 허위 인터뷰’로 규정하고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특별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렸지만 수사 착수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초에 공표했던 피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으며, 실상은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고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는 현존하는 법 질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회사 사무실과 한상진, 봉지욱 두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제출까지 했습니다. 이런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입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무차별적이고 무도한 수사 행태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김용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이 상상하고 있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권을 위해 휘두르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폭거에 대해 분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입장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경실련이 오세훈 후보 측을 측면지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리자

🕒 2021-08-17 📄 1949

부동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경실련이 오세훈 후보 측을 측면지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주 김현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SH공사 사장 지원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일부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경실련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 측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이후 부터 지금까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및 감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2004년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이후 부터는 집값거품의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부동산통계 정상화

[907 기후정의행진 입장문]

“원전씨, 석탄씨 이젠 쉬세요”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입장문 구성 - 논란 해명

- 문제적인 현 상황
 -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사과
 -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 우리의 대책
-
- A가 B했다.
 - 관련된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 직접 관련자들에게겐 특히 더 사과한다.
 -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B라는 결과가 나온 원인은 이렇다.
 - 우리는 원인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해 신뢰를 회복하겠다.

사과문 - 최악의 경우

-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
- 사건사고 경과를 밝히고
- 사건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
- 피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담백하게 설명
- 피해가 있으면 피해자에 대해 사과
- 피해보상과 원인규명, 재발방지 약속
- 사건사고를 계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환경운동연합 '아덜은 쓰레기' 홍보물 논란에 사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4-20 03:38

SNS 게재 플라스틱 재활용법 그림

"남성혐오 조장"에 "사려깊지 못했다"



공지 [사과문]금일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에 올린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게시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실망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admin

공지사항 2021-04-18 조회수 1453 수정 지우기

사과문

금일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에 올린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게시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실망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젠더 혐오와 갈등, 아동·청소년 혐오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혐오 인식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게시물을 발행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게 된 사실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체의 성인지·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환경운동연합 이름으로 제작하고 발표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홍종호

사무총장 김추이

홍보가 잘 되는 궁극의 방법

- 진실은 힘이 세다.
-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다.

질의응답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이게 잘 안 돼요.
- 이런 걸 하고 싶어요.
- 막막해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jsun9542@gmail.com
- brunch.co.kr/@jsun9542

